

# 이순재 - 왕석현 "최고령 vs 최연소"

## 애니 더빙 맞대결

스타들이 애니메이션 더빙 연기에 도전장을 던졌다. 자막판과 더빙판으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은 보통 자막판의 흥행 실적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흥행몰이를 한 '쿵푸 팬더'는 자막판 299만명, 더빙판 158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하지만 어린이 영화 '부그와 엘리엇'은 100% 더빙판만 상영하는 등 '가족용 영화'일 경우 '더빙판'을 찾는 관객들도 많다.

올해 들어서만도 유재석과 김구라·김동현 부자, 이경규 등이 '리틀 비버'에서 목소리 연기를 펼쳤고 한예

되는 등 작품성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자막판에서는 미국의 전설적인 명배우 에드워드 애스너가 '칼' 역할을 맡았다.

이순재가 맡은 칼 할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 까칠하고 남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외골수 노인이지만 깊은 속정을 간직하고 있는 캐릭터다.

아역 스타 왕석현도 '링스 어드벤처'의

이순재, 연기 인생 40년만에 '업'에서 더빙 도전

아역배우 왕석현 '링스 어드벤처' 거스 목소리 연기

배용준·최지우 '애니 겨울연가' 7년만에 목소리 호흡

슬은 '에이리언 VS 몬스터'의 여주인공을 맡았다.

연기와 배우 이순재는 연기 인생 중 처음으로 더빙 연기에 도전한다.

시트콤 '거침 없이 하이킥'을 통해 의외의 면모를 보여주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이순재는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 스튜디오가 내놓은 신작 '업'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토이 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몬스터 주식회사', '월-E' 등 내놓은 CG 애니메이션마다 박히트 행진을 이어온 픽사 스튜디오가 만든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인 '업'은 성격 까칠한 할아버지 '칼'과 귀여운 8살 탐험가 '러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미 미국 개봉 당시 주말 박스 오피스 1위에 오르며 관객 동원에 성공했고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

됐다. 벤처'를 통해 더빙 연기에 나선다. 8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과속 스캔들'을 통해 국민적인 스타로 떠오른 6살짜리 아역배우 왕석현은 각종 CF와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링스 어드벤처'는 동물 보호소에 갇혀 있던 살렘이 링스와 카멜레온 거스가 두더지, 염소, 매 친구들과 함께 사냥꾼 뉴먼에게 납치된 멸종 위기의 동물 친구들을 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왕석현은 이 작품에서 매사에 투덜대는 카멜레온 거스 역할을 맡아 더빙 작업을 마쳤다.

어리버리한 주인공 링스 역은 '은초딩'으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은지원이 맡았다. 또 신인 탤런트 정다혜가 링스의 여자 친구 링세트 역으로 출연한다.

배우 배용준과 최지우는 애니메이션 '겨울연가'의 남녀주인공으로 목소리 연기 호흡을 맞춘다.

2002년 KBS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준상과 유진으로 연기를 펼친 데 이어 7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목소리를 통해 주인공들의 애절한 감정을 표현했다.

애니메이션 '겨울연가'는 쉐키스트의 계열사 쉐디지탈어드벤처와 ㈜토탈프로모션으로 구성된 겨울연가 제작 위원회와 기획, 제작 중인 한일공동 합작품이다.

특히 준상과 유진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두 배우의 생김새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에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애니메이션 '겨울연가'는 TV 판 애니메이션으로 올해 가을 한국과 일본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 영화 여고괴담 5-동반자살



한국 공포영화의 대표 시리즈인 '여고괴담'의 다섯 번째 이야기로 4편 '여고괴담-목소리' 이후 3년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았다.

늦은 밤 학교 안 성당. 영원한 우정을 피로 맹세한 언주·소이·은영·유진 등 4명의 친구들은 죽을 때도 함께 하자며 동반자살을 약속한다.

하지만 그날 밤 언주가 욕실에서 투

5,500 對1 오디션 통과한

'호러 퀸' 5인방들의 가장 스펙터클한 공포

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남겨진 아이들은 자신들을 옥죄어 오는 언주의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공통경비구역 JSA'의 조감독을 거쳐 '복수는 나의 것'의 시나리오를 쓴 이종용 감독의 데뷔작으로 직접 각본을 썼다.

'여고괴담' 시리즈는 지금까지 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공효진·김민선·박예진·최강희·박진희·이영진·김옥빈 등 요즘 총무로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대 여자 배우들 대부분이 '여고괴담'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5천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오연서·장경아·손은서 등이 선발됐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럴 합니다 2. 편안합니다 3. 가격이 저렴합니다

**국제보청기**

www.kibr.com

본점 (042)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80  
 충청점 (062)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02-2779-8508

**RADIO**

1. **뉴스라디오**  
 2. **스포츠라디오**  
 3. **음악라디오**

**가톨릭방송** **가톨릭방송** **가톨릭방송**

**CBS** **가톨릭방송** **가톨릭방송**

080-800-1031

**TV**

1. **뉴스라디오**  
 2. **스포츠라디오**  
 3. **음악라디오**